

'인구절벽 쓰나미' 지역에 직격탄 광주·전남 MZ 4만3천명 떠났다

코로나 팬데믹 전·후 대비 市 2배 ↑

청년층 양질 일자리 부족 핵심 원인

소비 위축·노동력 고령화 '경제 타격'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결과 브리핑

김자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자료를 분석한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반등 조짐도 나타났다.

영광(145.8%)과 광양(129.5%), 신안(109.8%) 등에서는 MZ세대 순이동이 증가했으나 순천(-144.2%)·무안(-34.3%)·남양(-11.1%) 등 다수 지역에서는 감소세가 지속되며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청년층 이탈의 배경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교육·문화 인프라 격차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수도권 쏠림 현상이 구조화되면서 지역 청년층 유출은 단기적 현상이 아닌,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동시에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이는 소비 위축과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에 중장기적인 부담을 암길 수 있다

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최근 4년간 MZ세대 순유입이 나타난 광역단체는 서울·경기·인천·세종·충남·대전 등 6곳이다.

세종과 충남, 대전은 팬데믹 이전에는 MZ세대 순유출 지역이었으나 이후에는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특히 서울과 인천은 팬데믹 이후 대규모 순유입으로 전환되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한층 강화됐다.

리더스인덱스는 "서울 접근성과 일자리 밀집도, 신규 주택 공급,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 부담이 수도권 청년 유입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비수도권 지역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는 산업 기반과 생활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인구 불균형과 지역 소멸 위험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신세계, 서구청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나서

10만원 이상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등
적극 홍보…“지역 균형발전 도움 되길”

(주)광주신세계가 서구청과 손잡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사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각적인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끈다.

광주신세계는 16일 “사원들을 대상으로 사무실과 휴게실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

품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모인 기부금을 주민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다.

혜택은 연말 정산 시 세액공세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 기부할 경우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 기부할 경우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답례품은 10만원 이상부터 지급되며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증정한다. 답례품은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미식 답례품 등 다양한 품목이 마련돼 있다.

대한민국 제16대 조리명장으로 유명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안유성 명장의 '장수나주곰탕', '들기름메밀면', '다시마 식초&간장세트', '가마텐동' 밀키트와 대한민국 제16대 제과제빵

명장 마옥천 제빵사의 '베비에르 마왕파이 3종 세트', '베비에르 땅기/블루베리 파이' 중에 선택 가능하다. 이밖에 한우와 한돈세트, '황송촌' 양념돼지갈비, '운립기' 김치세트, 사과, 블루베리 등 30여 가지의 다양한 품목이 마련돼 있다.

앞서 광주신세계는 12월 초 광주·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현지법인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원과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주식 모을 시기…금융·전선·우주항공 관심을

주간 증시 전망



김 경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차장

스 시나리오를 강화했다.

아울러 연준은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국채 매입도 시작한다고 밝히며 긍정적 인 정책 환경 속에서 시장은 금주 발표될 11월 고용보고서(16일), 마이크론 실적발표(18일), 11월 CPI(18일), 11월 CPE 물가지수(19일) 결과를 확인하며 방향성을 탐색 할 것으로 보인다.

AI 기업들 대해서는 시장의 잣대가 다소 엄격해진 한주였다. 오라클은 기대치를 소폭 하회하는 매출과 무난한 가이던스를 제시했으나 냉정한 평가를 받았고 브로드컴은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기대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AI섹터 버블 우려를 기웠다.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키 플레이어는 마이크론으로 보인다. 18일 발표될 마이크론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AI반도체 벨류에이션에 대한 정당성을 재확인 시켜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국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부정적일 이유가 없다. 브로드컴, 오라클이야 벨류가 원체 비쌌던 PER 4-5배의 종목인데 투심이 꺾이니 당연한 급락이 나온 것이고, 삼전과 닉스의 경우 원체 낮은 벨류에 내년 실적 전망치는 상향 중이니 내년을 바라볼 때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눈치 보는 시장으로 지수는 고가 부근에서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외국인, 기관 등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적극적인 매수, 매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내년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기 때문으로, 당장에 지수 고가를 돌파할 모멘텀은 없으나 내년을 봤을 때 지수는 4,300, 4,500포인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많기에 현시점 주식 비중을 늘릴지 줄일지 눈치 보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는 투자자들 모두가 주목했던 12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다. 시장이 예상했던 금리 인하가 진행됐고, 연준은 시장의 우려와 달리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적이었다. 파월 의장은 ‘현시점에서 누구도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하지 않았다’며 긴축 우려를 일축했다.

특히 내년 성장을 전망은 상향하고 물가 전망은 하향 조정하며 미국 경제의 골디락스 즐음은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정적으로는 금융주가 좋아 보이고,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에너지 고속도로 수혜주인 전선주도 다시 수급을 받기 시작했다.

내년 일론마스크의 SPACE X 상장 이슈에 들썩이고 있는 우주항공 관련주도 내년 핵심 섹터로 보고 펀드나 ETF로 매수해 볼만하다.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천혜의 아름다운 광경과 건강한 먹거리가 풍부한

고흥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 고흥군

광고문의 : 062)650-2099